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무적'...10경기 무패 1위 '질주'

강경민 13골 4어시스트 맹활약
골키퍼 박조은 위기 때마다 선방
SK 29-24로 꺾고 9승 1무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이 10경기 무패행진으로 1위를 굳게 지켰다. 광주도시공사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부 2라운드 SK슈가글라이더즈와 경기에서 29-24(12-14, 17-10)로 승리했다. 9승 1무(승점 19)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여자부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까지 여자부 8개 팀 가운데 무패를 기록한 유일한 팀이 됐다.

강경민(13골·4어시스트)이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강경민은 10경기를 치른 현재 109골로 득점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포인트(득점+어시스트) 부문 1위다. 송혜수(5골, 2어시스트), 정현희(4골·4어시스트), 원선필(3골)도 골을 터뜨리며 승리에 힘을 보탤다. 이날 경기 MVP에 선정된 골키퍼 박조은은 방어율 38.89%(14/38)를 찍으며 골문을 굳게 지켰다. 박조은은 현재 방어율 39.67%로 리그 1위에 랭크돼 있다. 세이브 부문도 119개로 2위에 올라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을 12-14로 뒤진채 마무리했다. SK골키퍼 이민지의 선방에 막혀 득점을 터트리지 못해 다소 고전했다. 승부는 후반에 갈렸다. 광주도시공사 정현희가 후반 시작 2분만에 9m

슛을 터뜨리는데 이어 김지현이 같은 거리에서 득점, 14-14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은 1점씩을 주고 받으면서 쫓고 쫓기는 혼전을 거듭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강경민이 활약을 빛냈다. 강경민은 13, 14분 잇따라 골을 터뜨려 22-19로 3점차 리드 상황을 만들었다. SK는 유소정의 7m 골을 앞세워 후반 24-23까지 추격했다. 한점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송혜수가 6m 골로 다시 점수차를 벌인데 이어 9m골을 터뜨려 26-23으로 SK를 밀어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후 강경민이 2골 등을 보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에서도 광주도시공사는 혼자 12골을 몰아친 강경민을 앞세워 대구시청을 29-22로 꺾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MVP에 선정된 광주도시공사 골키퍼 박조은.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광주 시페퍼스 선수들이 10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꺾고 기뻐하고 있다. <KOVO제공>

꿀씨의 반란...페퍼스, 1위 현대건설 잡았다

폴세트 혈투 끝에 3-2 역전승
리드 36점 맹활약...시즌 3승

리그 최하위 광주 시페퍼스가 1위 현대건설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페퍼스는 지난 10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세트 스코어 3-2(21-25, 25-20, 20-

25, 25-20, 15-12)로 꺾었다. 페퍼스는 창단 이래 처음으로 현대건설을 꺾고 시즌 3승째를 올렸다. 페퍼스는 3연패에서 벗어났고 현대건설은 2연패에 빠졌다. 리그 7위 페퍼스는 주전 리베로 김연건과 주포 야스민의 공백에 전력이 약화된 현대건설을 폴세트 혈투 끝에 잡았다. 니아 리드는 양팀 최다득점인 36점을 올려 승리를 이끌었고 최가은(15점), 이한비(15점), 박경

현(10점)이 힘을 보탤다. 미들 블로커 최가은은 팀에서 두번째로 많은 공격득점을 뽑아내며 이어 블로킹으로도 7점을 올리는 등 맹활약했다. 페퍼스는 최가은을 주축으로 블로킹으로 13점을 뽑아내 높이 배구를 자랑하는 현대건설과 블로킹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페퍼스는 15개 서브범실을 기록하면서 힘겹게 경기를 풀어나갔으나 현대건설보다 수비 조직력과 공격력이 다소 앞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치관 광주시배구협회장 무투표 당선

"배구인 역량 결집 위상 제고"

광주시배구협회장에 정치관(사진) 전 광주시북구배구협회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주시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선거위·위원장 조경환)는 지난 9일 통합 3대 광주시배구협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등록한 정치관 후보에 대한 임원 적격 심사를 한 뒤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 당선증을 교부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광주시배구협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정치관 전 광주시북구배구협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정치관은 당선증을 받은 날부터 전임 전담수회

장의 잔여임기인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 광주시배구협회를 이끌게 된다. 광주시배구협회는 전 전담수회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됐다. 정치관 회장은 "배구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배구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등 광주시배구 위상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청소년들이 배구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광주시배구협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안 출신인 정치관 회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최고전과과정을 졸업하고 조선대 경



영대학원 건설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서구청 강영미 펜싱 월드컵 준우승

2년 여 만에 개인전 입상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의 만인니 강영미(38·광주시 서구청)가 2년 여 만에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개인전에서 입상했다. 강영미는 1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 개인전에서 나탈리에 모엘라우센(브라질)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강영미는 2021년 3월 러시아 카잔 월드컵 동메달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국제대회 개인전 시상대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 쑤이원(중국)을 12-7로 꺾고 처음으로 월드컵 개인전 결승에 진출한 강영미는 결승전에선 모엘라우센에게 8-15로 패해 우승 기회는 놓쳤다. 함께 출전한 세계랭킹 2위 송세라(부산시청)는 17위로 마쳤다. 같은 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에서는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9위에 올랐고, 우즈베키스탄 타



11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펜싱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광주시 서구청 강영미. /연합뉴스
슈켄트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에선 전하영(서울특별시청)이 27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아시아실내육상 마침내 애국가 울렸다

투포환 정유선 한국 최초 우승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마침내 애국가 울렸다. 정유선(26·안산시청)은 한국 선수 최초로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정유선은 1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여자 포환던지기 결선에서 16m98을 던져 우승했다. 은메달도 한국 선수가 따냈다. 이수정(30·서귀포시청)은 16m45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15m44를 던진 에키 페브리 에카와티(31·인도네시아)였다. 경기 뒤 시상식이 열렸고, 정유선과 이수정은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함께 불렀다. 한국 선수 들은 뜨거운 우승 경장을 펼쳤다. 이수정이 2차 시기에서 16m23을 던져 앞서갔지만, 정유선이 4차 시기에서 16m98을 던져 역전에 성공했다. 이수정은 5차 시기에서 힘을 냈지만, 포환은 16

m45 지점에 떨어졌다. 6차 시기를 마치고 경기가 끝난 뒤 정유선과 이수정은 '금빛·은빛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정유선과 이수정은 한국 육상 투척 종목에 이르는 선후배다. 정유선이 17m12의 한국 역대 3위 기록, 이수정은 16m81의 4위 기록을 보유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후배 정유선이 조금 더 앞섰다. 정유선은 '한국 육상 최초' 기록도 세웠다. 그동안 한국육상은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에 소수의 선수만 내보냈다. 이번 대회 전까지 한국의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는 2012년 제5회 중국 항저우 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4m30을 뛰어 2위에 오른 최윤희, 한 명뿐이었다. 제10회 대회 첫날인 10일 남자 세단뛰기 유규민이 동메달을 따냈다. 역대 두 번째 한국 메달리스트였다. 정유선은 대회 둘째 날 금메달을 따내며,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에 우승한 최초의 한국 선수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